

松江歌辭의 당대적 가치와 현대적 수용

金信中*

— <차 례> —

- I. 머리말
- II. 송강가사의 당대적 가치
- III. 송강가사의 현대적 수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송강가사로 통칭되는 松江 鄭澈(1536~1593)의 가사 작품 <關東別曲> 과 <思美人曲>·<續美人曲> 및 <星山別曲>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논자들에 의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작자인 송강에 대한 세밀한 작가론에서부터 각 작품들의 제작 시기 및 배경, 이본, 내용 및 구성, 정치 관이나 자연관, 타 작품과의 비교, 유형, 진술 방식, 미의식 해명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송강 및 송강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은 물론 송강가사가 갖는 높은 문학적 가치 때문이며, 그 결과 우리는 흔히 송강을 가리켜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절정을 구가한 작가’라는 유의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 전남대학교

그렇지만 전문적인 연구가 아닌 일반인의 작품 수용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우리는 송강가사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의 한 측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즉 송강가사가 그 위상에 걸맞는 기대만큼의 충분한 흥미나 감동을 주지 못한다거나, 작중 인물의 삶의 방식이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등의 불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주로 독서나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이 생성된 시기와 현대와의 시대적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정한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이나 가치 평가는 시대나 수용자에 따라 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고전문학의 경우 작품이 생성된 시기와 현대와는 대개 수백 년의 거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언어적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그 작품 세계를 현대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송강가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제작 시기는 16세기 후반으로¹⁾, 현재와는 무려 400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 이에 송강가사 네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산출시키고 향유하였던 조선시대와 현대와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그 당대적 가치와 현대적 수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송강가사의 당대적 가치

송강가사가 제작된 이후 조선시대 후기 사회를 지나며 인구에 회자되면서 꾸준히 수용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수용자들이 남긴 각종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송강의 가사와 시조 작품을 한데 모아 오늘에 전하는 「松江歌辭」를 비롯한 몇몇 소전 문헌

1) <관동별곡>은 작자의 나이 45세가 되던 선조 13년(1580)에 제작되었으며,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53세 때인 선조 21년(1588)에 제작되었다. 그리고 <성산별곡>은 그 제작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작품이다.

의 기록²⁾ 및 후인들이 엮은 만록이나 가집류의 평문, 그리고 현장에서의 수용 및 가창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각종 한역 내지 한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송강가사가 지녔던 당대적 가치를 비교적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만록류의 두 평문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송강의 <관동별곡>과 <전후사미인가>는 우리나라의 <離騷>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자로 쓸 수 없으므로, 오직 소리꾼들이 입으로 서로 주고받거나 혹은 한글로 전할 따름이다. 누군가가 칠언시로 <관동별곡>을 번역하였지만, 능히 아름답지는 않다. (중략)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그 말을 버리고 타국의 말을 배웠으니, 설령 십분 상사하다 하여도 단지 앵무새나 구관조가 흉내내는 사람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여항간의 초동급부가 흥얼거리며 서로 주고받는 것이 비록 비리하다고 할지라도 그 진위를 따진다면, 참으로 학사대부들의 이른바 詩賦라는 것과 함께 논할 수는 없다. 하물며 이 세 별곡에는 천기가 스스로 드러나 있고 이속의 비리함이 없으니, 자고로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오직 이 세 편뿐이다. 그렇지만 다시 이 세 편을 논한다면 <후미인가>가 더욱 높으니, <관동별곡>과 <전미인가>는 그래도 한자어를 빌어 그 모양새를 꾸몄을 따름이다.³⁾

2) 목판본으로 현전하는 『松江歌辭』에는 星州本 關西本 李選本의 세 이본이 있다. 성주본은 송강의 5대손 鄭觀河가 성주 목사로 있으면서 영조 23년(1747)에 간행한 것이고, 관서본은 송강의 6대손인 鄭實이 영조 44년(1768) 관서 관찰영에서 간행하였다. 또 이선의 발문(1690년 찬)으로 보아 숙종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선본(일명 一叢本)은 가장 古本일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다. 이 밖에도 李季祥이 간행하였다고 하는 黃州本과 송강의 현손 鄭濬가 차례로 간행한 義城本 및 關北本이 있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이로 보아 송강가사가 제작된 후 100년에서 20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판각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송강가사를 수록한 문헌으로는 이 밖에도 195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석관으로 간행한 『松江別集追錄』이 있으며,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서 최근에 발굴 소개한 영조 16년(1740) 경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가집 『古今名作歌』에는 <관동별곡>이, 그리고 金成遠의 『棲霞堂遺稿』 부록에는 <성산별곡>이 수록되어 있다.

3) 松江關東別曲前後思美人歌 乃我東之離騷 而以其不可以文字寫之 故惟樂人輩口相授受 或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가곡은 오직 우리말을 사용하나 간혹 한자를 섞기도 하여, 대체로 언문으로 세상에 전하여 행해졌다. 우리말을 사용한 것은 나라의 습속이 부득불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그 가곡을 비록 중국 악보와 견줄 수는 없으나, 또한 볼 만하고 들을 만한 것이 있었다. (중략) 내가 그 장가 중에서 두드러지게 세상에 성행하는 것을 취해 간략히 평어를 가하면 다음과 같다.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이 지은 것이다.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을 일일이 들어서 그윽하고 괴이한 경관을 설진하였다. 경물을 그려냄이 신묘하고 시어를 엮어감이 기발하여, 참으로 악보의 絶詞이다.

<사미인곡> 역시 송강이 지은 것이다. 『詩經』의 ‘美人’ 두 글자를 조술하여 우시연군의 뜻을 의탁하였으니,⁴⁾ 역시 영중의 <陽春白雪曲>과 같다.

<속사미인곡> 역시 송강이 지은 것이다. 前詞에서 미진한 생각을 다시 펴으니, 말이 더욱 교묘하고 뜻이 더욱 절실하여 가히 제갈공명의 <出師表>와 백중하다고 할 수 있다.⁵⁾

위의 (가)는 金萬重(1637~1692)의 『西浦漫筆』에, 그리고 (나)는 洪萬宗(1643~1725)의 『旬五志』에 나오는 내용이다. 둘 다 숙종조(1675~1720) 무렵의 기록인데, 조선 후기의 여타 평들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답습하거나 유사한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송강가사 수용의 일반적인

傳以國書而已 人有以七言詩翻關東曲 而不能佳 (中略) 今我國詩文 捨其言而學他國之言 設令十分相似 只是鸚鵡之人言 而問巷問樵童汲婦呶啞而相和者 雖曰鄙俚 若論眞實 則固不可與學士大夫所謂詩賦者同日而論 況此三別曲者 有天機之自發 而無夷俗之鄙俚 自古左海眞文章 只此三篇 然又就三篇而論之 則後美人尤高 關東前美人 猶借文字語以飾其色耳(金萬重, 『西浦漫筆』).

- 4) 『詩經』에서 미인을 통해 연군의 정을 나타낸 작품은 ‘邶風’의 <簡兮>이다. <간혜>는 궁중에서 舞人이 임금에게 춤을 바치는 노래인데, 현자가 중용되지 못함을 풍자한 것이다.
- 5) 我東人所作歌曲 專用方言 間雜文字 率以諺書傳行於世 盖方言之用 在其國俗 不得不然也 其歌曲 雖不能與中國樂譜比並 亦有可觀而可聽也 (中略) 余取其長歌中表表盛行於世者 略加評語如左 (中略) 關東別曲 松江鄭澈所製 歷學關東山水之美 說盡幽遐詭怪之觀 狀物之妙 造語之奇 信樂譜之絶詞 思美人曲 亦松江所製 祖述詩經美人二字 以寓憂時戀君之意 亦郢中之白雪 續思美人曲 亦松江所製 復申前詞未盡之思 語益工 意益切 可與孔明出師表伯仲者也(洪萬宗, 『旬五志』).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서포만필』은 송강의 <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이 이른바 시부와 같은 한문학이 아닌 우리말 노래로서, 그 안에 천기가 스스로 드러나 있고 이속의 비리함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오직 이 세 편뿐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자어[文字語]에 의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후미인가> 즉 <속미인곡>을 다른 두 작품보다 더욱 높이 평가하였다. 송강가사를 작품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일괄하여 작자의 우리말 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순오지』는 중국의 樂府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가곡을 논하는 자리에서 <勸善指路歌>·<俛仰亭歌>·<關西別曲> 등 당시의 두드러진 長歌와 더불어 송강의 세 작품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였는데,⁶⁾ <관동별곡>은 관동산수의 아름다움을 뛰어난게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사미인곡>은 우시연군의 뜻을 잘 의탁하였다는 점에서, <속미인곡>은 <사미인곡>과 같은 주제를 더욱 교묘하고 절실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관동별곡>을 ‘악보의 절사[樂譜之絶詞]’라고 일컫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위에서 상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송강가사 중에서도 <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으로, 유독 <성산별곡>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세 작품에 비해 <성산별곡> 수용의 폭이 당시 그만큼 좁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그 까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여기서 위의 평문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사회가 송강가사에 부여하였던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문이 아닌 우리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능란한 솜씨로 그 아름다움을 십분 발휘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한자어에의 의존도가 높은 <관동별곡>이나 <사미인곡>에 비해 고유어 위주의 시어 구사가 돋보인다

6) 洪萬宗은 『旬五志』에서 송강의 <將進酒辭> 역시 장가로 취급하여 논급하였다.

는 점에서 <속미인곡>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에 제작 유포되고 있던 가사 작품이 한둘이 아닌데도 『서포만필』이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오직 <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세 편뿐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송강의 우리말 구사 능력이 탁월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위의 『서포만필』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지만 다시 이 세 편을 논한다면 <후미인가>가 더욱 높으니, <관동별곡>과 <전미인가>는 그래도 한자어를 빌어 그 모양새를 꾸몄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속미인곡>에는 한자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속미인곡> 역시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上 白玉京을 엇디하야 離別하고
 히 다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허나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턱야 어즈러이 구똥편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어흐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기 따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흐며 사름이라 허물흐라
 설위 플터헤니 造物의 타시로다
 (<속미인곡> 서두, 성주본 『송강가사』에서.)

즉 그 서두에서부터 ‘天上’·‘白玉京’·‘離別’ 등의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서포만필』의 언급은 <속미인곡>이 한자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 비해 한자어 의존도

가 낮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송강가사 각 작품에 활용된 한자어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송강가사 네 작품에 활용된 명사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횟수 및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⁷⁾

작품명	명사 사용 횟수	한자어 횟수 및 비율	고유어 횟수 및 비율
관동별곡	318회	231회(72.64%)	87회(27.36%)
사미인곡	146회	61회(41.78%)	85회(58.22%)
속미인곡	93회	34회(36.56%)	59회(63.44%)
성산별곡	210회	124회(59.05%)	86회(40.95%)
계	767회	450회(58.67%)	317회(41.33%)

각 작품의 고유어 사용 비율이 <속미인곡>·<사미인곡>·<성산별곡>·<관동별곡>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고유어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속미인곡>의 경우에는 한자어 의존율이 36.56%이고, 가장 낮은 <관동별곡>은 한자어 의존율이 72.64%에 달한다.⁸⁾ 여기서 1957년 한글 학회가 엮은 『우리말큰사전』의 한자어 대 비한자어의 비율이 53.02% : 46.98%이고, 1956년 문교부가 조사한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의 한자어 대 비한자어의 사용 빈도 비율이 70.53% : 29.47%였음을 감안한다면,⁹⁾ <속미인곡>의 한자어 의존율이 현저히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7) 위에서 명사 어휘만을 조사 대상(의존명사대명사수사 등 제외)으로 한 것은 명사 어휘에 한자어의 분포가 높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層’과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은 편의상 두 개의 단어로 분리 취급하였으며, ‘罔極하다’와 같이 한자어에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굳어진 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부 단어의 복합어 인정 여부에 따라 위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사 대본은 성주본 『송강가사』이다.

8) <관동별곡>의 한자어 의존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그것이 기행문학이라는 특성상 수많은 한자어 지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데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결과이다.

대비되고 있는 통계가 각각 조선시대의 문학 작품과 현대 언어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송강가사의 그것이 한자어 분포가 높은 명사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속미인곡>의 우리말 사용이 돋보인다.

둘째, 내용에 있어서 군왕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추종을 통해 우시연군의 정을 극진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특히 굴원의 <이소>를 비롯하여, ‘미인’을 노래한 『시경』 패풍의 <간혜>, 제갈공명의 <출사표> 등과 비견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흐릿도 열두 새 흔 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흐니
 막음의 미쳐이셔 骨髓의 켜터시니
 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덕 족족 안니다가
 향 뜨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츰려 흐노라
 (<사미인곡> 후미, 성주본 『송강가사』에서)

그런데 이와 같은 군왕에 대한 일방적인 충절은 조선시대 사대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하였던 모범적인 삶의 자세이다. 그런 점에서 송강가사는 당시의 사대부적 삶이 지향하였던 전형적 가치를 구현한 작품으로 인식되면서 절대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후대에 이를 의방하여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이나 이진유의 <속사미인곡>같은 동일 유형의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셋째,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을 탁월하게 그려내었다는 점이다. 특히 우

9) 심재기, 『국어 어휘론 신강』(태학사, 2000), 162쪽의 주2 참고.

리나라의 대표적 명승으로 꼽히는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관동별곡>이 이에 해당되며, 위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성산별곡>도 그러한 범주에 드는 작품이다. 성리학적 세계관이 지배하였던 조선시대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유교적 윤리 의식과 더불어 사대부 문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두 축을 이루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송강은 <관동별곡>을 통해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것을 즐기면서도 관료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대부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蓉을 소갓는 듯 白玉을 못갓는 듯
 東溟을 박차는 듯 北極을 피왔는 듯
 높홀시고 望高臺 의로올샤 穴望峰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마트니 쏘 잇는가
 開心臺 고터올나 衆香城 바라보며
 萬二千峰을 歷歷히 헤여흐니
 峰마다 미쳐잇고 곳마다 서린 기운
 뭉거든 조치 마나 조커든 몹지 마나
 저 기운 호터내야 人傑을 문들고자
 形容도 그지 업고 體勢도 하도 할샤

(<관동별곡> 일부, 성주본 『송강가사』에서)

넷째, 우리말 노래인 가곡창으로 불려지면서 사대부층의 음악적 감수성에 잘 부합하였다는 점이다. <사미인곡>이 초나라 영중 지방의 <양춘백설곡>과 같다고 함은 바로 그것이 <양춘백설곡>과 같은 가곡으로서의 높은 품격을 지녔음을 지적한 것이다.

가사가 엄연한 시가문학으로 당시의 정음 계열 음악인 가곡창을 통해 향유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시대의 가사문학은 전기에는 주로 가

창을 통해 향유되다가 후기로 들어서면서 점차 음영 위주로 변모해 갔는데, 송강가사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제작되면서 창과 음영을 위한 율격적 배려를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특히 조선시대 후기 대부분의 가사가 음영화의 길을 걷던 때에도 송강가사, 특히 <관동별곡>과 <사미인곡>·<속미인곡>이 지속적으로 가창을 통해 전파되고 향유되었음을 우리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중 홍만중이 『순오지』에서 ‘악보의 절사[樂譜之絕詞]’라고 평한 <관동별곡>이 조선시대 후기 가곡창을 통해 가창되었음을 알려주는 한 예이다.

關東歌曲最清新 관동의 가곡은 맑고도 깨끗하여
樂府流傳五十春 악부에 유전함이 오십 년인데
文采風流今寂寞 문채와 풍류 이제는 적막하니
世間誰見謫仙人 적선인을 만난 이, 세상의 그 누구인가!
(金尙憲, <贈關東按使尹仲素>¹¹⁾, 『松江別集追錄』, 권1.)

金尙憲(1570~1652)이 당시 가곡으로 전창되던 <관동별곡>을 들으며 송강 생전의 호방했던 문채와 풍류를 추억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송강가사는 오래도록 가창 현장에서 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록하고 보는 문학’인 한시와는 다른 ‘부르고 듣는 문학’ 즉 우리말 노래로서 당시인의 음악적 요구에 잘 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

10) 당시까지의 사대부가사가 4음보 위주이면서도 3음보·5음보·6음보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송강가사는 철저한 4음보로 되어 있으며(단 <성산별곡>에서만 과음보가 한 차례 보임 : 너 외에/나온 鶴이/제 기술/브리고/半空의/소소쓸듯), 또한 시조와 같은 결사법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를 음영을 위한 율격적 배려라 한다면, 후자는 가창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려가 온전히 작자에 의한 것인지, 또는 전승 과정에 개입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11) 尹仲素(1589~1668) : 조선 현종 때의 문인 尹履之. 호는 秋峯이고, 仲素는 그의 자이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12) ‘기록하고 보는 문학’과 ‘부르고 듣는 문학’에 대해서는 조규익의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지금까지 송강가사에 대한 조선시대 후기 사회의 인식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 둘째 군왕에 대한 지극한 충절을 담고 있다는 점, 셋째 산수 자연 특히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을 탁월하게 그려내었다는 점, 넷째 가곡창으로 불리며 사대부층의 음악성 감수성에 잘 부합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송강가사는 조선시대의 가사 문학에서 매우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 널리 유포될 수 있었다. 현재 송강의 유작들이 필사본이 아닌 판각본의 형태로 수차례나 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이러한 가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조선 후기 사회가 송강가사에 부여하였던 위의 네 가지 의의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특히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사회의 사대부층이 표면적으로나마 표방하여야 하였던 최고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견지하여야 하였던 군왕에 대한 일방적인 충절과, 산수 자연에 침잠하면서도 끊임없이 확인하여야 하였던 공인으로서의 책무 또는 군은에 대한 감응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조선 사회의 사대부 작품이라면 그것의 작품성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였다. 그런 점에서 <관동별곡>과 <사미인곡>·<속미인곡>은 언어 구사 능력과 더불어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높은 작품성과 함께 당시의 최고 가치를 반영한 주제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성산별곡>은 사정이 달랐다. 외적으로는 <관동별곡>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승으로서 상징성을 갖는 관동의 산수를 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지명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星山’이라는 평범한 향촌의 자연 생활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내면적 주제 의식에 있어서 <사미인곡>·<속미인곡>과 같은 충군 의식을 담고 있지도 않았으며, 산수 자연을 지향하면서도 공변된 儒者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거나 군은을 느끼는 자세를 드러내

본질』(집문당, 1994) 20~21쪽의 주2와 주4 참고.

보이지도 않았다.¹³⁾ 오히려 도가적 색채를 덧씌운 피세 은일의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당시 사대부들이 표면에 내세운 보편적 가치에서 한 걸음 비켜 서 있었다. 여기에서 <성산별곡>이 지난 조선 사회에서 여타 송강가사 작품에 비해 그 수용의 폭이 좁았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Ⅲ. 송강가사의 현대적 수용

앞에서 논의한 송강가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행해질 송강가사에 대한 많은 연구는 바로 그러한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명하고 확인하면서 또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봉건 윤리가 지배하였던 지난 사회와는 달리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군왕을 향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였던 유교적 가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수평적이고 쌍무적인 관계를 근간으로 한 민주적 질서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문학의 존재 양태 및 그 향유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가사 문학은 이제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산출시키는 생명력을 상실한 채 고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대의 수용자들이 송강가사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성산별곡>의 경우를 보자. 앞에서 필자는 그것이 평범한 향촌의 자연 생활을 다루면서, 또한 공변된 유자의 자세를 드러내기보다는 도가적 피세 은일의 세계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지난 조선 사회에서 그 수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성산별곡>의 바로 그러한 점이 오늘날에

13) 여기서 <성산별곡>과 자주 비교되는 <侑仰亭歌>의 결구가 “이 몸이 이렇굽도 亦君恩 이샷다”라는 일종의 공식적 표현으로 되어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와서는 오히려 독자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지역 사회 및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잡다단해진 현대 생활이 사람들에게 도가적인 삶의 여유와 휴식을 꿈꾸게 한다는 점에서, 충군의식에 바탕을 둔 유교적 가치보다는 도가적 은일의 삶을 다룬 <성산별곡>의 세계가 흡인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 장에서 논의한 송강가사의 네 가지 가치 중 현대적 수용에 상당한 부담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주제 의식과 관련된 두 번째(군왕에 대한 일방적인 충절) 문제와 향유 방식과 관련된 네 번째(가창을 통한 음악적 향유) 문제이다.

민주적 질서에 길들여진 현대의 독자들이 과연 ‘미인(군왕)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충절)’이라는 주제 의식을 가진 <사미인곡>(또는 <속미인곡>)과 같은 작품에서 무슨 흥미를 느낄 것인가? <사미인곡>이 ‘사대부적 삶의 전형적 가치를 구현’하였다는 당대의 평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혹평대로 ‘보신과 권토중래를 위한 이유의 문학’에 다름없는 것인가? 대답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이다. 개개의 문학 작품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인물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수용자인 우리들의 몫이다. <사미인곡>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주제 의식 그 자체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가치 규범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한 인물의 자세 또는 내면적인 갈등과 고뇌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 사회는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에 구현된 인물상이나 작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현대 사회의 중심 화두로 떠오른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적용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어느 시대건 그 사회의 안정과 변화를 이끌었던 두 힘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니와, 때로는 보수가 역사의 퇴행을 저지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진보가 역사의 발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절대적인 선과 악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당대의 가치 질서에 충실하였던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의 세계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보수를 대변하는 한 모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것이 쓰여진 특수한 환경 속에서 고전 작품은 읽혀지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 글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고전문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출발하지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전문학을 고전으로 바라보는 것, 더구나 문학으로 바라보는 순수한 회복을 추구하지는 것 이상일 수 없다. 왜 요즘의 옷으로 입지 않았느냐고, 옛사람에게 감히 핀잔을 주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그 핀잔이 지속되다 보면 그도 또한 자신을 향한 질책(叱責)이 당연한 것인 줄 알게 된다. 그들이야 어디 이렇게 모든 후손들이 일률적으로 서양 옷 입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는가. 서양식으로 단장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책하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옛것이였다.¹⁴⁾

또한 향유 방식에 있어서도 가사는 이제 더 이상 시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즉 가창이나 음영을 통한 ‘부르고 듣는’ 기능을 상실한 채, ‘시가’가 아닌 ‘시’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자신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었던 두 개의 다리 중 하나를 잃어버린 채, 불안정한 모습으로 현대의 독자들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음악적 측면이 배제된 상태에서 접하는 가사의 율격이란 그다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현대인의 문학적 감수성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낭송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부분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가창이나 음영을 전면적으로 되살리는

14) 정병현, 「고전문학 교육의 시각」, 『한국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숙명여대 출판국, 2003), 26~27쪽.

것은 이미 변화된 시대가 용납하는 바 아니다.

IV. 맺음말

여타의 문학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송강가사 역시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계속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수용 될 것이다. 그러한 예로 조선 사회의 보편적 주제 의식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었다 하여 송강가사 중 그 수용의 폭이 가장 좁았던 <성산별곡>이 오히려 지금은 같은 이유로 인해 더욱 친근하게 읽혀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친자연적 성향의 작품 읽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송강가사는 현대적 가치와는 다른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의 향유 방식마저 이제는 잃어버렸다. 따라서 오늘날의 독자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기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 이것이 송강가사에만 국한되지 않은 우리 고전문학 일반이 당면한 문제임은 물론이다. 그러기에 지금 고전작품 수용의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이해를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문학교육론적 탐색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 『松江歌辭』
- 『松江別集追錄』
- 金萬重, 『西浦漫筆』
- 洪萬宗, 『旬五志』

김신중, 「송강가사의 시공상 대비적 양상」, 『고시가연구』, 제23합집, 한국고시가
문학회, 1995.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심재기, 『국어 어휘론 신강』, 태학사, 2000.

정병헌, 『한국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 숙명여대 출판국, 2003.

조규익,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집문당, 1994.

<투고일 : 2005. 12. 15.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K C I

<Abstract>

The Value in Those Days and Modern Acceptance of *Songgang Gasa*

Kim, Shin-chung

We call the four Gasa literary work(“Gwandongbyeolgok”, “Samiingok”, “Sokmiingok”, “Seongsanbyeolgok”) written by Jeong-cheol(1536~1593), the poet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Songgang Gasa*.

Songgang Gasa was created about 400 years ago and it has been regarded as the greatest Gasa literary work. However the readers' values of the times caused them to be indifferent to *Songgang Gasa* now. So this paper is intended to consider what the value in those days of *Songgang Gasa* is and the matters concerning modern acceptance.

Accepting and appreciating literary works are apt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 There is two reasons why 400 years old *Songgang Gasa* leads modern readers to avoid it after a discussion. One is that it sticks to confucian morals extraordinarily, the other is that an enjoying form, singing, is faded out now. Consequently above all things, modern readers need to understand it in that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theory of educating literature must be a guide to that understanding.

Keywords : Jeong-cheol, *Songgang Gasa*, The value in those days, modern acceptance, confucian morals, enjoying form